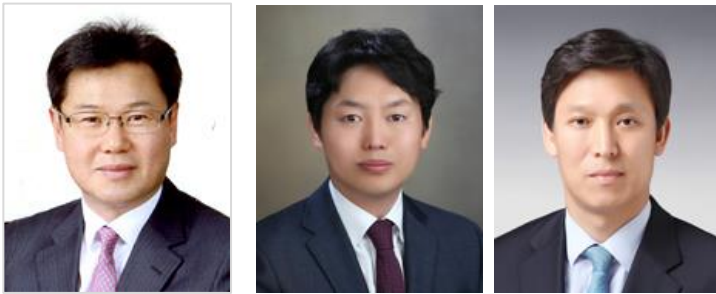


■ 지평 소식 ■

강성국, 박정수, 김영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 강성국 변호사, 박정수 변호사, 김영문 변호사)

지평은 지난 3 월 6 일 강성국 전 부장판사, 박정수 전 부장판사, 김영문 전 부장검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강성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1994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다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2015년 3월부터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서 새출발하였습니다.

법관으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 형사, 상사(회사)국제거래, 공정거래, 파산, 행정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변호사는 1994년 사법연수원(23기)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부터 2015년 2월까지 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지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신청, 행정, 회사, 건설, 부동산, 조세, 노동, 산재, 의료, 도산, 가사, 공정거래 등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문 변호사는 부산지검, 창원지검 거창지청,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검사를 거쳐 법무부 법무과 검사로서 국적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청와대 근무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대구지검 및 수원지검 강력부장 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부에서 보호법제과, 법질서선진화과, 범죄예방 기획과 과장을 거친 이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으로서는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송파트에서 제반 형사사건 분야, 특히 기술유출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